



《천하국가》

김한규 지음 | 소나무 | 872쪽 | 값 35,000원



서강대 김한규 교수가 30년 연구해 온 ‘고대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를 총정리했다. 물론 이 질서의 핵심은 ‘책봉조공정책’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김 교수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과 ‘책봉조공’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단어가 내포한 오류를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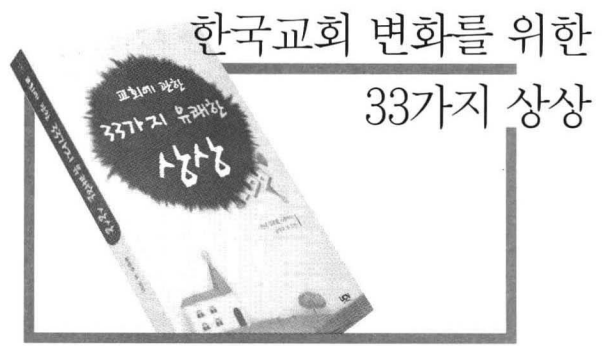
세계의 중심은 자신이고 이외에는 야만이라는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은 한무제 이후 엄철繼繼 논쟁을 거치며 한풀 꺾이게 된다. 중국과 비중국의 구분을 거부하고 주변의 모든 영토는 다 중국의 것이라는 제국주의를 억누르고 중국과 비중국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는 제국주의의 피로함에서 벗어 나려는 실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때 도입된 것이 바로 ‘책봉과 조공’으로 중국은 명분을 얻고 주변국들은 실익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외교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종속관계를 드러내는 단어는 아니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접근성에 따라 그 관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 자체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단어가 아니다. 서구와 만나기 시작한 청나라 이전 대부분의 전통시대 ‘중국’은 국가 개념과 구별되는 중원의 특수한 역사공동체를 의미했다. 청나라가 그랬듯 중국, 즉 중원은 한족 이외에도 거란, 몽골 등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요동, 서역, 티베트, 강저, 만월 등 서로 다른 역사공동체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베트남, 초원 유목 공동체(몽골), 티베트, 서역, 강저, 월, 대만 등의 역사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조금 냉소적으로 봤을 때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말은 중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질서일 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은 티베트와 동북공정 등 최근의 역사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신동섭 기자



《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

유창주 외 32인 지음 | 기독교연합신문사 | 264쪽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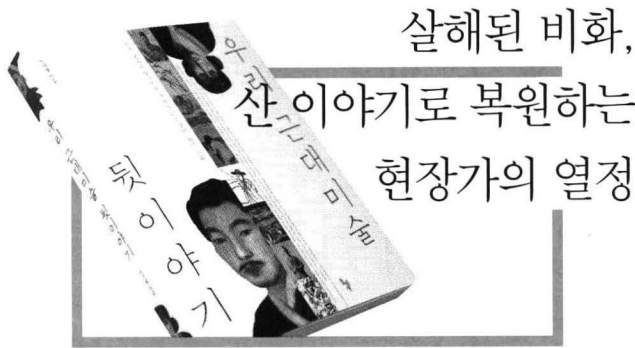


상상은 왜 예찬되어야 하는가? 33명의 필자들이 의기투합해 달려든 《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은 “상상 없이는 변혁도 없기 때문”이란 묵직한 답을 내놓는다. 교회에 관한 알록달록한 상상을 펼치는 책은 제목만큼이나 유쾌하기 그지없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유창주 씨는 ‘나눔자판기’를 만들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후원금을 넣고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단체의 버튼을 누르면 단체에서 전하는 감사의 글과 기부영수증이 발급된다. 꼭 한번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노년전문가 유경 씨는 그의 이력만큼 교회에 노년을 더한다.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제 공하는 식사로 끼니를 때우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판단은 오산. 어린이 보육 보조, 식사당번 등 교회 부족한 일손을 돕겠다고 나선 노인들은 주일학교 교사, 노인성가대 등으로 활발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 유경 씨의 말 그대로 “노년 만세, 교회 만세”다. <기독교신문> 발행인 김종희 씨는 ‘홀어지는 예배’라는 톡 톡 튀는 상상을 내민다. 이는 2개월간 자신의 교회를 떠나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곳의 새로운 설교, 새로운 양식을 배우자는 것이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지 성찰의 기회를 갖는 한편, ‘예배당 중심의 교회관’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란 다. 목사님, 장로님이 아닌 아저씨 아주머니라 부르면 평등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수유초등학교 김한결 학생의 상상은 압권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김한결 학생의 말에 권위만을 내세우는 종교인들은 뜨끔할 것이다.

나눔, 예배, 제도, 문화, 교육, 통일 등 모두 6개의 주제 아래 분류된 33가지 상상들은 이룰 수 없는 한낱 몽상이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장 실천해 보아야 할 새로운 덕목이다. 한편 상상하는 일이 자유인 만큼, 필자들을 전문가들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책이 갖는 또 다른 미덕. 소설, 산문, 희곡, 신문기사 등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글은 읽는 맛을 더한다.

박용두 기자



《우리 근대미술 이야기》 이구열 지음 | 들배개 | 288쪽 | 값 16,000원



엉덩이가 가벼운(?), 뭐 하나라도 의문이 생기면 속시원히 풀어야 하는 현장가들의 욕성을 통해선 살해된 이야기도 산 이야기로 둔갑한다.

이 책의 저자 이구열 씨는 '팩트'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현장 미술평론가. 이미 《한국문화재 수난사》《북한 미술 50년》 등 우리미술사의 사각지대를 탐색해 온 공로로 미술문화계 안팎에서 예우가 높다. 그런 그가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듯 우리 근대미술사의 사각지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근대미술사 최초의 사건들과 일제 강점기 화단을 둘러싼 비화, 서구 20세기 혁신 미술의 도입기에 한국 미술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예술가들의 자취를 좇는 이 책은 그간 골방에 방치됐거나 지배권력의 속에 얼굴을 내밀지 못한 미술사에 촉수를 드리운다. 한국사회에 '누드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당대 가치관을 읽게 해준다. 1916년 양화가 김관호가 도쿄미술학교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해질녘》이 수석을 차지하긴 했으나 일간지들은 누드란 이유로 수상소식은 게재하나 작품은 실을 수 없다고 발표한다. 그만큼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 있었다는 의미다. 그간 거론되지 못한 숨은 공로자들 중 <대한민보>오세창 사장의 활약담은 새로운 충격이다. 날카로운 풍자만화로 친일파를 조롱했던 이도영의 뒤에서 이를 게재하도록 돕고, 실제로 만화주제를 선택하고 제목, 설명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는 사연이다. 때론 저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목들도 있다. 최초의 양화연구소 고희동의 고택 보존 작업에 힘쓰고, 백방의 수소문 끝에 첫 양화가 부부 임용런, 백남순을 만나는 걸 보면 그가 왜 '발로 뛰는' 미술사학자로 인정받는지 이해가 간다.

흔히 1세대 미술평론가, 미술전문기자라고 불리는 이구열 씨가 칠순 중반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책. 뒤안에 간혀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는 시도이기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김청연 기자



《상대성이론, 그 후 100년》 정재승 기획 | 김제완 외 14인 지음 | 궁리 | 316쪽 | 값 10,000원



올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에 따라 과학도서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인슈타인 전기부터 이론해석에 관련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성이론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전문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쉽고 자세하게 쓴 책들은 과학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 인기가. 《상대성이론, 그 후 100년》 역시 상대성이론을 다룬 책들 중 하나다. 독특한 것은 상대성이론 그 자체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빛의 속도로 20세기 문화를 관통하다'라는 부제를 가진 책의 기획을 맡은 정재승 씨는 서문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이론이 도대체 어떤 이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출간됐지만, 20세기 철학과 과학, 예술과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루는 영역은 철학, 미술, 사진, 음악, 건축, 영화, 광고, 생활 등. 상대성이론이 이들 영역에 끼친 영향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쉽고 흥미롭게 서술했다.

1부에서는 상대성이론의 현재적 의의와 아인슈타인의 일생을 간략하게 개괄했고, 본 주제가 시작되는 2부를 여는 '철학'을 보면, 아인슈타인에 앞서 뉴턴의 절대공간을 부정했던 마흐의 철학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좌표계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하여 상대성이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상대성의 원리는 "의미 문제가 진리 문제에 선행한다"라는 논리경험주의의 기본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광고'에서는 "상대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장하고 '미술·사진' 분야에서는 "상대성이론은 결코 상대적인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보편성과 절대성이 깔려 있는 이론이다"라는 전제를 재확인하게 한다. 시간여행의 활용과 그에 관한 시사점 등 상대성이론이 '문학'과 '영화'와 공유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남다르다.

홍이현 기자